

# 광주시·전남도, 4·19혁명 66주년 민주영령 추모

姜시장 “개헌 추진 5·18정신 명문화”  
金지사 “연대·참여정신 중요한 가치”

광주시와 전남도가 4·19혁명 66주년을 맞아 4·19 정신 계승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5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기념식 장소인 조대부고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교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4·19혁명 정신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대부고는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교 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고등학생 시위를 처음 준비했던 학생 중 한 사람이 당시 조대부고 3학년 전만길 학생이었고 19일 낮 12시경 수많은 조대부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며 “이들이 66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정의롭고 용감하게 싸웠기에 헌법 전문에 4·19 민주이념이 새겨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광주공원에 있는 4·19기념탑에 헌화를 한 후 묵념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오전 목포시 상동 달맞이공원 4·19민주혁명 기념비를 찾아 민주영령을 추모, 참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날 기념식은 ‘희생을 기억하고, 정의를 이어가다’를 주제로 국민의례, 4·19기록영상 상영,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신계승 결의문 낭독, 기념공연,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을 비롯해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 고종채 4·19민주혁명회광주·전라지부장, 김정순 4·19혁명희생자유족회광주전라지부장, 장길만 4·19혁명공로자회광주호서지부장 등 4·19단체, 보훈단체, 조대부고 학생,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4·19혁명 시위 참여 학교인 조대

부고 4·19혁명 기념탑 앞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는 민주주의 역사를 이룩한 4·19정신을 미래세대와 나누기 위해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교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다. 2024년 광주고, 2025년 광주공고에 이어 올해 조대부고에서 개최했다.

이날 조대부고 밴드 동아리 학생들은 넥스트의 ‘그대에게’를 공연하며 선배들의 민주정신을 기렸다.

기념식에 앞서 광주공원 내 4·19혁명 기념탑에서는 강 시장과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4·19 공법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배 행사가 진행됐다.

전남도도 이날 목포 달맞이공원 4·19 민주혁명 기념비를 찾아 민주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4·19혁명 국가유공자와 유족, 전남도 실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4·19혁명이 보여준 연대와 참여의 정신은 오늘날의 중요한 가치”라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해 지역

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9혁명은 민주항쟁사의 커다란 분수령으로 현대사의 아픔을 견어내고 민주주의 이념을 확고히 뿌리내린 민주시민혁명으로 평가된다.

특히 광주에서 4월19-20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시작됐으며 28일에는 목포·여수, 27일에는 순천까지 확산하는 등 호남 전역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청년·학생들의 숭고한 희생과 높은 뜻은 오늘날까지 국민에게 깊은 교훈과 힘이 되고 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 프로젝트 ‘불림’ 추진

시민 기부 금속, ‘악기’로 재탄생

4-5월 시청에 금속 수집함 설치

광주시는 19일 “오는 9월5일 막을 올리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시민들의 손길로 완성되는 특별한 예술프로젝트 ‘불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직접 기부한 금속이 예술가의 손을

거쳐 ‘세상에 없던 악기’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담는다.

‘불림’은 박찬경·권병준 작가가 참여하는 ‘GB 커미션’의 핵심 작품으로 한국 전통의례인 ‘결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리·설치 작업이다.

‘결림’은 마을을 돌며 물품과 염원을 모아 의례를 통해 공동체에 되돌려주는 나눔의 전통을 뜻한다.

이 프로젝트는 광주·전남 시민이 기부한

금속으로 악기를 제작하고 해당 악기로 만든 음악을 전시와 퍼포먼스로 선보이는 방식이다.

시민의 일상 속 물건이 예술로 재탄생해 공동체로 환원되는 순환 구조를 담았다.

광주시는 이번 프로젝트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시청 1층에 금속 수집함을 비치,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한다.

수집 대상은 전선, 열쇠, 낫그릇, 냄비, 캔 등 다양한 금속류다. 참여자에게는 비엔날레전시

장 내 ‘불림’ 작품 인근에 이름을 표기하고 제작된 작품 음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프로젝트의 작품 설명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연다. 참여 작가가 직접 나서 프로젝트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를 주제로 오는 9월4일부터 11월15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기존·신규 작품과 함께 광주의 역사와 시민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한 ‘GB 커미션’ 작품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현대미술 축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변은진기자

## 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출범 ‘만전’

전남도가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주요 실국

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주요 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보시스템, 조직, 예산 등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핵심 과제 추진상황과 쟁점,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

했다.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시·도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 전환과 조직 정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또한 그동안 4차례 개최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정책협의체와 두 시·도 실무부서 간 협의의

통해 도출된 합의사항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황기연 부지사는 “출범 과정에서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 도, 봄철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전남도는 19일 ‘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6월19일까지 2개월간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시·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7월1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남도는 이 같은 제도 변화를 홍보하고 어업·레저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

전남도는 출항빈도가 높은 승선 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최근 2년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어선을 우선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구명조끼·구명부환 적정수량 비치, 소화기·구급약품 등 안전설비 구비, 승선자 명부 작성과 신분증 대조 확인 등이다. 낚시어선 선주 대상 현장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양시원기자

**묘 이강 · 개강**

가족묘 조성 / 개강 / 묘지이강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강 전문 ☎ 문의) 062-464-3466